

# A Validation Study of the Toronto Empathy Questionnaire - Korean Version

Hwan Kim Sumi Han<sup>†</sup>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Seoul Cyber University, Seoul, Korea

Humans are capable of empathizing and responding approximately when others express their feelings even though they may not fully understand the situation. In this regard, emotional empathy is the fundamental and unique concept in the meaning of empathy. Spreng et al. (2009) developed the 16 item Toronto Empathy Questionnaire (TEQ) by focusing on emotional empathy. This study focused on examining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TEQ. First, The TEQ was translated into Korean. Then, 200 graduate students answered the TEQ. The authors analyzed the test-retest reliability, internal consistency, and factor structure. Another sample of 255 undergraduate students took the package test which includes the ex-empathy questionnaires and aggression scale. With the second sample data, the authors examine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scales. Results showed that the test-retest reliability and internal consistency of the TEQ - Korean version were appropriate. Furthermore, it accurately measured convergent validity by showing a significantly positive relationship with ex-empathy questionnaires and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aggression. In terms of factor structure according to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here lacked a goodness of fit in the single factor model; conversely, according to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the single factor was suggested. In addition,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words:** Toronto Empathy Questionnaire, empathy scale, cognitive empathy, emotional empathy, emotional empathy scale

공감(empathy)은 상대의 생각, 느낌, 행동을 이해하고 반응하는 데 기초가 되는 사회인지의 중요한 요소로서 도덕적이거나 친사회적인 행동을 촉진시키고 공격적이거나 반사회적 행동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Eisenberg, 2000; Mestre, Samper, Frias, & Tur, 2009). 또 공감은 치료적 관계에서 관계의 질을 좌우하며 라포 형성을 촉진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Levinson, 1994). 따라서 치료적 관계를 맺는 의사, 간호사,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등의 직업군에게 공감은 필수 요소라 할 수 있다.

‘공감(empathy)’이라는 용어는 독일어 *Einfühlung*을 Titchener (1909)가 영어로 번역하면서부터 사용되었다(Wispé, 1987). 이후 심리치료 분야의 주요 선구자였던 Carl Rogers가 공감에 관심을 가지면서 공감은 심리학 분야에서 널리 연구되었다. 흔히 공감 연구

에선 공감을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으로 구성되었다고 본다. 초기에는 마음읽기와 같은 인지적 측면을 강조한 연구가 많았는데, 이들은 공감에서 타인의 조망을 이해하는 조망수용(perspective taking)을 강조하였다(Piaget, 1932; Mead, 1934). 그러나 곧이어 공감의 정서적 측면을 강조하며 공감에서 정서적 반응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 연구가 등장하였다(Mehrabian & Epstein, 1972; Stotland, 1969; Stotland, Mathews, Sherman, Hansson, & Richardson, 1978). 이후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이 둘 다 중요하다고 여겨지며 통합적인 접근이 등장하였고, Rogers (1983) 역시 공감에서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의 두 차원을 모두 강조하였다. 그리고 Davis (1983) 같은 이는 공감을 측정하는 척도인 대인관계 반응성 지수(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를 개발하면서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Spreng, McKinnon, Mar와 Levine (2009)은 공감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선호되는 상황도 있으나, 공감에서 보다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측면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sup>†</sup>Correspondence to Sumi Han,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Seoul Cyber University, 60 Solmae-ro 49-gil, Gangbuk-gu, Seoul 01133, Korea; E-mail: hsumi@hanmail.net

Received Apr 20, 2016; Revised Sep 14, 2016; Accepted Oct 7, 2016

Spreng 등(2009)은 현존하는 공감 척도들 11개에서 142문항을 추출하여 이를 요인분석하여 공통 요인을 찾으려고 시도하였고, 그 결과로 토론토 공감 질문지(Toronto Empathy Questionnaire, TEQ)가 탄생하였다. TEQ의 문항들은 주로 정서공감을 측정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최종 개발된 TEQ는 Davis (1983)의 공감척도인 IRI의 공감적 관심(Empathic Concern, EC)과는 .74의 상관관계를, 그리고 IRI의 조망수용(Perspective Taking, PT)과는 .35의 상관관을 보여주었다.

TEQ의 개발 및 IRI 공감적 관심 차원과의 높은 상관관계는 공감에서 인지적 이해보다는 정서적 반응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TEQ는 공감에서 정서적 반응성, 즉 정서공감을 핵심 요인으로 보는 입장에서 개발되었다는 것이다. 정서공감은 타인의 정서를 대리적으로 경험하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이는 공감의 기본적이고 고유한 측면이라 할 수 있다.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예: 슬픔)을 느낄 수 있고 그에 맞게 적절하게(예: 안타까운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반응성은 타인이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인지적으로 이해하지 못해도 가능하다. 즉 이유는 몰라도 상대의 정서를 느끼고 반응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인지공감은 타인의 감정 상태를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 즉 그의 입장에서 헤아려보는 것을 강조한다. 그래서 인지공감은 종종 마음이론(theory of mind) 개념과 중첩되는 것으로 여겨지며 일부 학자들은 둘을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한다(Lawrence, Shaw, Baker, Baron-Cohen & David, 2004).

본 연구는 공감에서 정서공감에 무게중심을 두고 정서공감을 측정하는 것으로 개발된 TEQ를 한국판으로 번안하고 그 심리측정적 속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미 국내에서 공감을 측정하는 척도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유독 정서공감을 측정하는 척도 및 그에 대한 연구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 국내 공감 척도 관련 연구 중 대표적인 것들을 살펴보면, 먼저 Hogan (1969)의 공감 척도(The Empathy Scale)를 Choi (1987)가 부분적으로 번안하여 사용한 바 있는데, 이 척도는 정서적 측면 보다는 인지적 측면에 맞추어져 있으며(Eslinger, 1998), 측정하는 영역이 공감 행동보다는 사회적 기술(social skills) 쪽에 가깝다는 비판이 있었다(Baron-Cohen & Wheelwright, 2004; Davis, 1983).

그리고 Mehrabian과 Epstein (1972)의 정서적 공감 질문지(Questionnaire Measure of Emotional Empathy, QMEE)가 있는데, 이 척도는 흔히 정서공감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척도로 알려져 있다. Mehrabian과 Epstein (1972)은 공감을 타인의 정서에 대한 대리적 경험(vicarious emotional experience)이라고 정의하며 공감에서 정서적 요인이 핵심임을 강조하였다. 이 척도는 9점 척도(매우 찬

성 4점, 매우 반대 -4점) 3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시 7개의 하위 척도(정서적 공감에 대한 민감성, 낯선 타인에 대한 느낌의 인식, 극단적인 정서적 반응성, 타인의 긍정 정서경험에 감동하는 경향성, 타인의 부정 정서경험에 감동하는 경향성, 동정적인 경향성, 곤경에 처한 타인과 접촉하려는 의지)로 나뉜다. QMEE는 정서적 공감 경향성 척도(Emotional Empathic Tendency Scale)라고도 불리며 국내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았고, Kim (1993)과 Park (1994)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번안하여 소개하였다. 이후 초등학생용(Park, 1997), 중학생용(Kim, 1997), 대학생용(Kim, 1998)으로 제작된 바 있으며, 이 척도의 일부 문항을 선정하여 각각의 연구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한 경우도 많다(Kang, 2002; Lee, 2000).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을 통합하여 측정한 Davis (1983)의 IRI도 공감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척도이다. IRI는 5점 Likert 척도이며, 각 하위 차원 당 7개의 문항이 있어 총 2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Davis (1983)는 IRI에서 4가지 하위 차원을 설정하여 척도를 제작하였는데, 이들은 각각 조망수용(PT), 상상(fantasy, FT), 공감적 관심(EC), 개인적 고통(PD)이다. 국내에서는 Park (1994)이 처음 번안하여 사용한 이래, 많은 연구자들이 이 척도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또는 각각의 연구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그런데 이후 이 척도의 4개 하위 차원 중 상상(FT)과 개인적 고통(PD)이 공감에 적합하지 않은 차원이라는 비판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Cliffordson (2001)은 개인적 고통(personal distress, PD) 차원이 공감의 핵심 측면이 아닐 수 있다고 언급했으며, Alterman, McDermott, Cacciola와 Rutherford (2003)는 개인적 고통(PD) 차원이 신경증적 성향에 더 가깝다고 보았다. 이 밖에도 Baron-Cohen과 Wheelwright (2004)는 IRI의 4개 하위척도 중 상상(Fantasy) 소척도와 개인적 고통(PD) 소척도가 공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Alterman 등(2003)도 IRI의 4 소척도 중 조망수용(PT)과 공감적 관심(EC) 소척도만이 공감의 핵심 요소를 담고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Bryant (1982)의 공감 척도(Index of Empathy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IECA) 역시 정서적 공감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국내에서는 Yon (1988), Hong (1988), Yang과 Chung (1995) 등 많은 연구자들이 사용한 바 있다. 본래 Mehrabian과 Epstein (1972)의 QMEE를 바탕으로 한 척도로, 총 문항은 22개인데 이 중 17문항을 QMEE에서 빌려와 제작한 것이다. 척도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동, 청소년을 위해 제작한 것인데, 응답 방식은 아동과 청소년의 연령을 고려하여 4학년까지의 연령대에서는 '그렇다/아니다'로 응답하기도 하고, 그 이후 연령대에서는 9점 척도를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후속 연구자들은 편의상 5점 척도로 사용하기도 하였

다(Del Barrio, Aluja, & Garcia, 2004). 그런데 IECA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문항 내용에서 성인 피검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는 문항들(예: 반 친구가 규칙을 지키지 않아 선생님께 벌 받는 것을 보아도 마음이 별로 아프지 않다)이 있다. 따라서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할 때는 성인을 위한 정서공감 측정 척도가 별도로 필요할 수 있다.

Baron-Cohen과 Wheelwright (2004)의 공감 척도(The Empathy Quotient, EQ)는 Baron-Cohen (2002)의 공감하기-체계화하기 이론(Empathizing-Systemizing theory, E-S)을 기반으로 하여 제작된 척도이다. Baron-Cohen이 제안한 공감하기는 타인의 생각과 감정에 관심을 가지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을 의미하며, 체계화하기는 체계를 분석하고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Baron-Cohen과 동료 연구자들은 자폐 성향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자폐 성향은 체계화하기 능력이 극단적으로 발달한데 반해 공감하기 능력은 극단적으로 부족하여 나타난다고 보았다. 이런 연유로 Baron-Cohen과 Wheelwright (2004)의 EQ 척도는 자폐 성향을 연구할 때 주로 사용되며, Baron-Cohen, Richler, Bisarya, Gurunathan과 Wheelwright (2003)의 체계화하기 척도(The Systemizing Quotient, SQ)와 자주 함께 사용된다. EQ는 40개의 검사 문항과 20개의 통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채점은 '매우 동의한다'를 2점, '약간 동의한다'를 1점, '약간 동의하지 않는다'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를 0점으로 채점하는 방식을 취한다. 문항들은 인지공감을 측정하는 문항과 정서공감을 측정하는 문항이 섞여 있으나 점수는 각 차원의 점수를 산출하지 않으며, 총점을 산출하여 SQ 척도 점수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기에 정서공감을 측정하는 도구로는 적절하지 않다.

이 밖에 국내에서 사용하는 공감 관련 척도로서 특정 직업군을 대상으로 하는 의사 공감 척도나 간호사 공감 척도 등도 있다. 의사 공감 척도의 경우 Hojat 등(2001)의 제퍼슨 의사 공감 척도(Jefferson Scale of Physician Empathy)를, 그리고 간호사 공감 척도의 경우 LaMonica (1981)의 공감 평정 척도(Empathy Construct Rating Scale, ECRS)를 번안하여 사용한 것이 많다. 이 척도들은 주로 환자와의 공감적 관계를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환자와 공감적 관계를 맺는 능력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 척도들은 응답자(의사나 간호사)가 환자와 맺는 공감적 관계의 수준을 측정하므로 관심의 초점이 달라 정서공감을 연구할 때는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다.

Barrett-Lennard (1981)의 관계 검사(Barrett-Lennard Relationship Inventory, BLRI) 역시 공감 연구에서 자주 사용되는 자기보고식 척도이다. 이 척도는 심리상담의 작업 중에 상담자와 내담자

가 맺는 관계의 질을 측정하는 척도이다. BLRI는 공감적 이해, 존중 수준, 일치성, 존중의 무조건성, 개방성 등 5가지 차원의 내용을 총 85개의 문항으로 측정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Chung (1986)이 이를 번안하고 타당화하였다. 이 척도는 상담자와 내담자 용의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의 주어진 다를 뿐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공감 연구에서는 공감적 이해(Empathic Understanding) 소 척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 이 척도 역시 앞의 의사 공감 척도나 간호사 공감 척도와 마찬가지로 응답자의 정서공감 특성을 직접 측정하기보다는 응답자(상담자)가 내담자와 맺는 관계의 수준을 측정하므로 정서공감을 직접 연구하는 경우와 관심의 초점이 다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 공감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접근하느냐에 따라 측정 척도도 달라진다는 것, 그리고 정서공감은 Mehrabian과 Epstein (1972)의 QMEE나 Bryant (1982)의 IECA 또는 Davis (1983)의 IRI 중 공감적 관심(EC) 소척도로 측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QMEE는 처음부터 정서공감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 제작된 것이므로 가장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QMEE의 경우, 척도가 공감 그 자체를 측정한다기보다는 일반적인 정서적 각성(general emotional arousability)을 측정하는 것에 더 가깝다고 원 저자들이 스스로 지적하며(Mehrabian, Young & Sato, 1988), 이후 척도를 개정하여 균형 정서 공감 척도(Balanced Emotional Empathy Scale, BEES)를 다시 만들었다(Mehrabian, 2000). BEES는 9점 리커트식 척도(매우 찬성 4점, 매우 반대 -4점)이며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Kim (2010)이 이를 청소년용으로 번안한 바 있으며, 또한 Chung (2012)이 번안, 타당화한 것도 있는데, 하위 척도로 정서적 개입, 정서감염, 낯선 타인의 감정 이해, 상상적 공감, 공감적 관심의 5요인 구조를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 척도의 경우, 원 저자가 더 이상 척도가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문항 공개를 막고 있어 추후 사용하기에 어려운 실정이다(<http://www.kaaj.com/psych/contact.html>). 따라서 연구자들에게 개방되어 있고 정서공감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척도인 TEQ를 번안하는 것이 정서공감 연구에 꼭 필요한 선행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을 요약하면, 국내에 소개된 다양한 공감 척도들이 있으나 정서공감에 초점을 맞춘 척도는 많지 않으며 그나마 널리 알려진 QMEE와 BEES가 최근에는 원저자의 통제로 인해 사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preng 등(2009)이 정서공감 척도로 제작한 TEQ를 한국판으로 번안하고 타당화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TEQ는 우수한 심리측정적 속성을 지녔으며, 기존 공감 척도들과의 상관도 좋아 적합한 변별타당도 및 수렴타당도를 확보하였다고 한다(Spreng et al., 2009; Totan, Dogan, & Sapmaz, 2012).

게다가 최근 공감 관련 분야의 연구에서 활용도가 높아지는 추세이므로 TEQ를 한국판으로 번안하여 심리측정적 속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방 법

### 연구 대상

본 연구를 위해 두개의 표본을 순차적으로 사용하였다. Table 1에 두 표본의 구성 정보를 제시하였다. 먼저 표본 1은 서울 소재 한 온라인대학교 상담심리전공 대학원생 및 대학원 졸업생 200명이 대상이었다. 표본 1의 경우, 총 200명 중 남자는 54명(27%), 여자는 146명(73%)이었으며, 평균연령은 45.93세( $SD = 8.35$ )였다. 표본 1에게는 우리말로 번안한 TEQ를 실시하였고 3주 후에 재검사를 실시하였다. 표본 1은 자발적 참여자로 구성하였는데, 3주 후 재검사를 실시할 때는 127명만이 응답하여 63명의 탈락자가 발생하였다. 63명에 대해 체계적 탈락 발생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성별과 연령별 비율을 살펴본 바, 최초 200명과 3주 후 127명의 성별과 연령별 비율은 서로 유사하였으며, 카이스퀘어( $\chi^2$ ) 검정으로 동일성을 살펴 보았을 때도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표본 2는 동일 온라인대학교 학부 재학생 중 ‘상담의 기초’ 과목을 수강하는 수강생 25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 2의 경우, 총 255명 중 남자는 95명(37.3%), 여자는 160명(62.7%)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35.31세( $SD = 10.35$ )였다. 표본 2에게는 TEQ와 함께 공감과

관련된 척도들을 패키지로 실시하였다.

### 측정 도구

#### 토론토 정서공감 척도(TEQ)

본 연구에서 한국판으로 번안, 타당화려는 TEQ는 Spreng 등(2009)이 제작한 척도이다. 저자들에 의하면 TEQ는 기존 공감 척도들의 공통요인인 정서공감을 측정하는 척도로 여겨진다. Spreng 등(2009)은 기존의 공감 척도 문항들을 요인분석하여 단일 공통요인을 찾으려고 시도하였고 그 결과 16문항으로 구성된 TEQ를 개발하였다. Spreng 등(2009)이 TEQ를 제작하기 위해 참고한 척도들은 다음과 같다: Davis(1983)의 대인관계 반응성 지수(IRI), Hogan(1969)의 공감 척도(The Empathy Scale), Mehrabian과 Epstein(1972)의 정서적 공감 질문지(QMEE), QMEE를 개정한 Mehrabian(2000)의 균형 정서 공감 척도(BEES), Wang 등(2003)의 인종문화 공감 척도(Scale of Ethnocultural Empathy), Hojat 등(2001)의 제퍼슨 의사 공감 척도(Jefferson Scale of Physician Empathy), Reynolds(2000)의 간호 공감 척도(Nursing Empathy Scale), Hashimoto와 Shiomi(2002)의 일본판 청소년 공감 척도(Scale for Empathy in Japanese Adolescents), Schutte 등(1998)의 정서지능 척도(Measure of Emotional Intelligence), Burgess, Alderman, Evans, Emslie와 Wilson(1998)의 실행기능문제 질문지(Dysexecutive Questionnaire), Hornak, Rolls와 Wade(1996)의 정서적 이해 측정(measure of emotion comprehension). Spreng 등(2009)은 위의 척도들에서 척도 내 문항을 재사용하거나 또는 부분 수정하여 최초 142문항으로 구성된 예비척도를 만들었고, 이후 요인분석 절차를 통해 요인부하량이 .40 이상으로 높은 문항들만 골라 최종적으로 16문항을 선정하여 TEQ를 완성하였다.

TEQ는 전혀 아니다(0점)부터 항상 그렇다(4점) 까지 5점 리커트식 척도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공감이 뛰어난 것으로 채점한다. Spreng 등(2009)은 TEQ의 내적합치도를 .85로 보고하였고, 대표적인 공감 척도 중 하나인 IRI의 EC(공감적 관심) 차원과는 .74의 높은 상관을, 그리고 IRI의 PT(조망수용) 차원과는 .35의 중등도 상관을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척도를 사용하기 위해 먼저 TEQ의 대표 개발자인 Spreng 박사에게 이메일을 보내 사용 허락을 받았다. 다음으로 본 연구자들이 문항들을 번안하였으며, 영어에 능통한 심리학 박사 2명이 이를 검토하고 수정하여 최종 문항을 만들었다.

#### 대인관계 반응성 지수(IRI)

본 연구에서 대인관계 상호작용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반응 능력을

**Table 1.** Demographic Information of Respondents

		Variable	Frequency	Ratio (%)
Sample 1 (N=200)	Gender	Male	54	27
		Female	146	73
	Age	Below 29	8	4
		30-39	34	17
		40-49	88	44
	Above 50	70	35	
Sample 1 retest (N=127)	Gender	Male	31	24.4
		Female	96	75.6
	Age	Below 29	5	3.9
		30-39	21	16.5
		40-49	58	45.7
	Above 50	43	33.9	
Sample 2 (N=255)	Gender	Male	95	37.3
		Female	160	62.7
	Age	Below 29	96	37.7
		30-39	64	25.1
		40-49	71	27.8
	Above 50	24	9.4	

측정하기 위해 Davis (1983)의 대인관계 반응성 지수(IRI)를 사용하였다. 국내에서 Park (1994)이 번안하고 Chung (2012)이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Davis (1983)는 IRI에서 4가지 하위 차원을 설정하여 척도를 제작하였다. 네 가지 하위 차원은 각각 조망 수용(PT), 상상(FT), 공감적 관심(EC), 개인적 고통(PD)이다. 조망 수용(PT)은 '나는 남을 비난하기 전에 내가 만일 그 사람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느낄까 생각해보려고 한다'와 같이 타인의 관점이나 태도를 자발적으로 취해보려는 경향을 의미한다. 상상(FT) 차원은 '나는 소설을 읽을 때 주인공의 느낌에 깊이 빠져 든다'와 같이 허구적인 인물의 느낌이나 행동에 감정이입 되는 것을 의미한다. 공감적 관심(EC) 차원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볼 때 동정심이 생기거나 보살펴주고 싶거나 염려해주는 경향을 의미한다. 개인적 고통(PD) 차원은 타인의 불행이나 고통에 자신도 괴로워지는 경향을 의미한다. 대인관계 반응 지수는 5점 리커트식 척도이며, 각 하위 차원 당 7개의 문항이 있어 총 2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Park (1994)은 각 하위 척도들의 내적합치도를 .70-.78 사이로 보고한 바 있고, 60일에서 75일 간격을 두고 실시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62-.81로 보고하였다. Kang 등(2009)의 한국어판 대인관계반응성 척도의 경우는 내적합치도를 .80으로,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76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공감 측정에 관심이 있으므로 IRI에서 정서공감 차원에 해당하는 EC와 PD 소척도를 주로 살펴 보았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PT 소척도 .73, FT 소척도 .74, EC 소척도 .66, PD 소척도 .78로 나타났다.

#### Bryant 정서공감 지수(IECA)

Bryant (1982)는 Mehrabian 및 Epstein (1972)과 동일한 입장에서 정서공감 척도를 개발하였다. 즉, 이 척도는 특정 상황에서 보이는 타인의 정서경험에 대한 응답자의 대리적 정서반응을 평가한다. 총 2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래는 '예' 또는 '아니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5점 리커트 방식을 사용하였다. 22개 문항 중 17개 문항을 Mehrabian과 Epstein (1972)의 QMEE에서 빌려왔으므로 QMEE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Kim, Ghim, Jung, Yang과 Koo (2008)가 22개 문항 중 문항-총점 상관성이 낮은 5개 문항과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1개 문항을 삭제하여 16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Kim 등 (2008)은 내적합치도를 .866으로 보고하였다.

IECA는 본래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공감척도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항을 검토한 바 문항에서 '아이'를 '사람'으로 바꾸면 성인에게 실시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성인용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70으로 나타났다.

#### 공감적 이해 소척도(BLRI)

한국판 TEQ의 수렴타당도를 확보하는 한 방법으로, TEQ가 기존 공감 척도 중 타인을 공감적으로 이해하는 능력과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Barrett-Lennard (1981)의 관계검사(BLRI) 중 공감적 이해(EU) 소척도를 사용하였다. Barrett-Lennard (1981)의 BLRI는 85문항짜리 6점 리커트식 척도이며 심리치료 및 상담 장면에서의 치료자와 내담자 간 관계의 질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데, 하위 차원으로 공감적 이해, 존중 수준, 일치성, 존중의 무조건성, 개방성 등 5가지 차원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Chung (1986)이 번안하였는데, 상담자용과 내담자용 척도가 따로 구분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용 공감적 이해 소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연구 참여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담자'라는 용어를 '상대방'으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80이었다.

#### 공격성 척도(The aggression questionnaire, AQ)

흔히 공감은 이타성이나 친사회적 행동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 공격성과 부적 상관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TEQ가 공격성과 부적 상관을 나타내는지 살펴보려고 하였고,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 Buss와 Perry (1992)의 공격성 척도를 Seo와 Kwon (2002)이 한국판으로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공격성 척도는 총 2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점부터 5점까지 5점 리커트식 척도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본래 Buss와 Perry (1992)의 공격성 척도는 총 29개 문항이었지만, Seo와 Kwon (2002)은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2개 문항을 제외하고 총 27개로 구성하였다. 척도는 4개의 하위 요인을 선정하고 있는데, 이들은 각각 신체적 공격성(예: '나는 너무 화가 나서 물건을 부순 적이 있다' 등 9문항), 언어적 공격성(예: '친구들은 내가 따지기를 좋아한다고 말한다' 등 5문항), 분노감(예: '일이 뜻대로 안됐을 때 나는 화를 참기 어렵다' 등 5문항), 적대감(예: '내가 부당하게 대우받고 있다고 느낄 때가 종종 있다' 등 8문항)이다. Seo와 Kwon (2002)은 척도의 내적합치도를 전체 척도의 경우 .86으로, 그리고 하위척도의 경우 .67-.76 사이의 값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전체 척도의 경우 .89였다.

####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를 위해 서울 소재 한 온라인대학교에서 학생 게시판을 통해 연구 내용을 안내하고 참여를 요청하였다. 두 개의 표본을 순차적으로 구했는데, 먼저 온라인대학교 대학원생 및 대학원 졸업생으로 구성된 표본 1을 모집하여 한국판 TEQ를 실시하고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기초적인 문항분석, 내적합치도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을 실시하였다. 내적합치

도 분석에서 문항-총점 상관이 낮은 문항이 발견되거나 EFA를 통해 요인부하량이 낮은 문항이 발견될 경우 해당 문항을 배제하고 최종본 TEQ를 확정할 계획이었다. 그리고 표본 1에게는 3주 후에 다시 한 번 TEQ를 실시하여 이 자료를 가지고 검사-재검사 신뢰도 계수를 산출하였다.

표본 1의 자료로 분석을 마친 후에 온라인대학교 학부생으로 구성된 표본 2를 모집하여 TEQ를 다시 실시하고, 이 자료로 원 저자들이 제안한 단일 요인 모델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TEQ와 함께 기존 공감 척도들도 실시하였는데, 이는 다른 관련 척도들과의 상관패턴을 분석하여 TEQ가 적절한 수렴-변별 타당도를 지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서였다.

마지막으로 표본 1과 표본 2의 자료로 TEQ 점수에 성차 및 연령차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공감능력은 여성이 남성보다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으며(Baron-Cohen et al., 2003; Mestre, Samper, Frias, & Tur, 2009; Rueckert & Naybar, 2008), Spreng 등(2009)의 연구에서는 세 표본 중 두 개의 표본에서 여성의 점수가 남성의 점수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경향성이 나타나는지 확인해보았다. 그리고 연령차의 경우, 흔히 나이 든 연령대가 젊은 연령대에 비해 정서공감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있고(Gruhn, Rebucal, Diehl, Lumley & Labouvie-Vief, 2008; Helson, Jones, & Kwan, 2002; Phillips, MacLean & Allen, 2002;

Schieman & van Gundy, 2000), 젊은 연령대와 나이 든 연령대 간 차이가 없다는 결과도 있다(Diehl, Coyle, & Labouvie-Vief, 1996; Eysenck, Pearson, Easting & Allsopp, 198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떤 경향이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표본 1의 경우 자발적인 참여로 자료를 얻었으며, 표본 2의 경우 연구 참여자에게 참여도 점수를 부여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컴퓨터 통계 패키지인 SPSS 20.0 버전 및 AMOS 21.0 버전을 사용하였다. 표본 1 자료로 EFA를 시도할 때 적절한 요인부하량의 기준은 Jahng (2015)이 제안한 바 .30 이상으로 하였다. 다음으로 표본 2의 자료를 가지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할 때는 AMOS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CMIN/DF, Goodness of Fit index (GFI), Tucker-Lewis index (TLI), comparative fit index (CFI),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 지표를 살펴보았다.

## 결 과

### 기술통계 분석

먼저 표본 1에게 실시한 한국판 TEQ의 각 문항 및 총점에 대해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각 문항들을 살펴보면 왜도와 첨도 기준치를 심하게 벗어난 경우는 없으며, TEQ 총점은 정규분포의 모양을 띠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2.** Item Analysis of 16 Korean-TEQ Items

Item	M (SD)	Skewness	Kurtosis
1. 흥이 난 사람 곁에 있으면 나 또한 흥이 나는 경향이 있다.	3.095 (0.61)	-.183	.249
2. 주변 누군가 불행한 일을 당해도 나는 별로 동요되지 않는다. (r)	1.015 (0.89)	.884	.496
3. 무례한 대접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언짢아 진다.	3.415 (0.59)	-.719	1.221
4. 주변 사람이 즐거워한다고 해도 나는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r)	1.115 (0.80)	.693	.694
5.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것을 좋아한다.	2.990 (0.74)	-.365	-.112
6. 나보다 불행한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고 애처로운 마음이 든다.	3.245 (0.74)	-1.178	2.430
7. 친구가 고민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하면 나는 대화를 다른 주제로 돌리려고 한다. (r)	0.295 (0.50)	1.386	.915
8. 누군가 아무 말하지 않더라도 나는 그가 슬픈 상태인지 알 수 있다.	2.750 (0.79)	-.616	.462
9. 나는 다른 사람의 기분에 잘 맞춰주는 편이다.	2.940 (0.74)	-.503	.285
10. 자기 스스로 병을 만드는 사람들에게겐 동정심이 느껴지지 않는다. (r)	1.630 (0.963)	.495	-.125
11. 누군가 울고 있으면 짜증이 난다. (r)	1.050 (0.83)	.595	-.025
12. 나는 타인의 감정에 관심이 많지는 않다. (r)	1.060 (0.90)	.716	.280
13. 누군가 화난 걸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든다.	2.315 (0.88)	-.075	-.664
14. 누군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걸 볼 때, 동정심이 많이 생기지는 않는다. (r)	0.770 (0.72)	1.189	2.810
15. 행복에 겨워 우는 사람들을 보면 바보같이 느껴진다. (r)	0.740 (0.90)	1.405	1.970
16. 이용당하는 사람을 보면 그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	3.125 (0.66)	-.351	.144
총점	48.200 (5.85)	-.215	.031

Note. (r) = reverse coding items.

**문항-총점 상관 및 요인부하량**

다음으로 개별 문항과 총점과의 상관 및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한 요인부하량을 확인하였다. Table 3에 각 문항 별로 산출한 문항-총점 간 상관계수와 문항이 제외되었을 경우 내적합치도를 제시하였다. 2번과 8번 그리고 10번 문항의 문항-총점 상관값이 각각 .283, .275, .295로 조금 낮았으나 문항을 제외시킬 만큼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다. 또 2번과 7번 그리고 10번 문항을 제외시킨다고 해서 내적합치도가 크게 증가하는 것은 아니었다. 아울러 Table 3에 제시된 문항별 요인부하량을 살펴보면, 모든 문항들의 요인부하량이 .3을 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Jahng (2015)은 요인의 해석에 주로 참고하는 측정변수들은 해당 요인과 절대값 .3 또는 .4 이상의 요인부하량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한국판 TEQ의 모든 문항은 요인부하량이 .3을 넘어 적절한 수준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결과를 고려하여 한국판 TEQ는 Spreng 등(2009)의 원 척도와 마찬가지로 1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내적합치도와 검사-재검사 신뢰도**

다음으로 한국판 TEQ의 내적합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  $\alpha$  계수를 산출한 결과 .767로 나타났다. 또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구하여 한국판 TEQ의 시간적 안정성을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표본 1의 자료를 활용한 3주 간격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92로 적합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시간적 안정성을 확인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Dawis (2000)는 두 시점 간 평균 차이를 t 검증을 통해 살펴볼 수 있

**Table 3.** Item-Total Correlation and Factorial Loadings of Korean-TEQ Items

Item No.	Item-Total correlation	$\alpha$ if item deleted	Factorial loading
1.	.322	.758	.405
2.	.283	.763	.319
3.	.360	.756	.419
4.	.377	.754	.430
5.	.401	.752	.500
6.	.405	.752	.471
7.	.451	.752	.521
8.	.275	.763	.325
9.	.526	.742	.599
10.	.295	.763	.315
11.	.300	.761	.328
12.	.428	.749	.451
13.	.337	.758	.391
14.	.380	.754	.432
15.	.328	.759	.388
16.	.444	.750	.514

다고 제안했는데, 이 방법에서 역시 시간적 안정성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t=1.495, p=.13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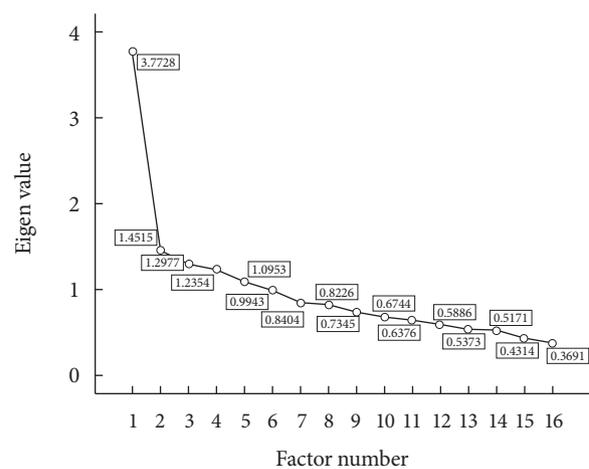
**요인구조**

본 척도를 개발한 Spreng 등(2009)은 TEQ의 요인구조에 대해 단일요인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TEQ 한국판의 요인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표본 1의 200명 자료로 탐색적 요인분석(EFA)을 실시하였다. 주축분석법(principal axis analysis)을 적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해본 결과, 고유치 1이 넘는 요인의 개수는 총 5개로 나타났다. 그런데 고유치들을 크기 순서대로 도식화하여 나타낸 스크리 도표(Figure 1)상에서 L자형 스크리에 포함되지 않은 고유값의 개수를 시각적으로 살펴보면 요인수는 1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였다. 이는 Spreng 등(2009)의 제안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단일 요인은 전체 변량의 23.58%를 설명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마친 후, 단일 요인 구조의 타당성을 확증하기 위해 다른 표본 (표본 2)의 자료를 활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AMO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최대 우도 방식(Maximum Likelihood)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았다. 이때 표본 2뿐만 아니라 표본 1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Table 4에 각 표본 집단의 적합도 지수를 제시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먼저  $\chi^2$ 값(220.545)을 자유도(104)로 나눈 값(CMIN/DF)은 표본 1에서 2.121, 표본 2에서 2.520으로 나타났다. CMIN/DF 지수의 합치도 기준은 3점으로(Kim, 2007),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점수로는 1개의 요인수를 가정한 요인 모형이 자료와 충분히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적합도 지수들도 살펴볼 때 GFI의 경우 0.9 이상일 때 좋은



**Figure 1.** Screen analysis of TEQ-Korean version.

**Table 4.** Test of Single Factor Model of TEQ-Korean Version

	$\chi^2$	CMIN/DF	GFI	TLI	CFI	RMSEA
Sample 1	$\chi^2(104) = 220.545, p < .001$	2.121	.874	.702	.741	.076
Sample 2	$\chi^2(104) = 220.545, p < .001$	2.520	.880	.741	.776	.077

**Table 5.** Correlation Analysis among TEQ, IRI, IECA, BLRI, AQ

	IRI-PT	IRI-FT	IRI-EC	IRI-PD	IECA	BLRI-EU	AQ
TEQ	.400***	.324***	.634***	-.072	.672***	.506***	-.305***
IRI-PT		.319***	.352***	-.225***	.388***	.612***	-.383***
IRI-FT			.484***	.312***	.344***	.088	.224***
IRI-EC				.160*	.540***	.380**	-.184*
IRI-PD					.036	-.373***	.304***
IECA						.378***	-.136
BLRI-EU							-.519***

Note. PT=perspective taking; FT=fantasy; EC=empathic concern; PD=personal distress; IECA=index of empathy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EU=empathic understanding; AQ=aggression.

\* $p < .05$ . \*\* $p < .01$ . \*\*\* $p < .001$ .

**Table 6.** Gender Difference of the TEQ-Korean Version

Sample	TEQ Mean (Standard Dev.)			F
	Male	Female	Total	
Sample 1	(n=54)	(n=146)	(n=200)	.845
	47.57 (6.13)	48.43 (5.75)	48.20 (5.85)	
Sample 2	(n=95)	(n=160)	(n=255)	3.286*
	45.98 (7.70)	47.59 (6.34)	46.99 (6.91)	

\* $p < .10$ .

모형으로 판단되나 본 자료들의 경우 각각 .874 (표본 1), .880 (표본 2)으로 기준에 다소 못 미치고 있다. TLI와 CFI는 1에 가까울수록 양호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본 자료들은 역시 기준에 다소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편 모형의 간명지수(measure of parsimony)를 살펴보는 RMSEA의 경우, .08보다 낮아야 좋은 적합도로 볼 수 있다는 기준(Kim, 2007; Lee, 2000)에는 부합하였다.

**공존타당도: 다른 척도들과의 상관**

TEQ의 공존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표본 2를 활용하여, 기존의 대표적 공감척도인 IRI와 IECA, BLRI-EU, 그리고 공감과 부적 상관을 보인다고 알려진 AQ(공격성) 척도와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Table 5에 제시하였다. Table 5를 살펴보면, TEQ는 IRI의 소척도 중 PT, FT, EC 소척도 그리고 IECA 및 BLRI-EU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반면 TEQ는 AQ와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고, IRI 척도의 PD 차원과는 유의미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 Age Difference of the TEQ-Korean Version

Sample	TEQ Mean (Standard Dev.)				F
	below 29	30-39	40-49	above 50	
Sample 1 age group	(n=8)	(n=34)	(n=88)	(n=70)	1.406
	51.38 (2.92)	47.24 (5.30)	47.85 (5.83)	48.74 (6.28)	
Sample 2 age group	(n=96)	(n=64)	(n=71)	(n=24)	2.584*
	46.86 (7.59)	46.55 (5.76)	48.51 (6.70)	44.21 (6.77)	

\* $p < .10$ .

**성차 및 연령차**

이번에는 한국판 TEQ를 사용할 때 성차와 연령차가 나타나는지 확인해보았다. Table 6에는 성별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는데, 표본 1과 표본 2 모두에서 유의미한 성차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표본 2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점수가 높은 경향성이 나타났다,  $F = 3.286, p = .071$ .

Table 7에는 연령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편의상 20대 이하, 30대, 40대, 그리고 50대 이상으로 비교하여 보았다. 표본 1과 표본 2 모두에서 유의미한 연령차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표본 2에서는 40대에 비해 50대 이상의 점수가 떨어지는 경향성은 나타났다,  $F = 2.584, p = .054$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Spreng 등(2009)의 토론토 공감 척도(TEQ)를 우리말로 번안하여 심리측정적 속성을 살펴보았다. 공감은 인지적 측면

과 정서적 측면의 두 측면이 통합적으로 다루어져 왔는데, 인지공감은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는 측면을 강조하였고, 정서공감은 타인의 정서를 대리적으로 경험하거나 반응하는 측면을 강조하였다. TEQ는 기존 공감 척도 문항들을 요인분석하여 단일 공통 요인을 찾으려는 시도 하에 개발된 척도로 문항들은 주로 정서공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 한국판 TEQ의 심리측정적 속성을 살펴본 바, 먼저 16개 문항의 문항-총점 상관은 적절한 수준이었으며, 전체 검사의 내적합치도와 검사-재검사 신뢰도 역시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TEQ와 기존의 다른 척도들과의 상관을 살펴보았을 때, 기존 공감 척도들(IRI, IECA, BLRI-EU)과는 정적 상관을 나타낸 반면 공격성 척도(AQ)와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 수렴-변별 타당도가 적절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Spreng 등(2009)이 제안한 단일요인 모델에 대해서는, 탐색적 요인분석 기법의 스크리 도표 자료로는 요인수를 1개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다른 표본 자료를 추가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살펴본 바 CMIN/DF와 RMSEA 지표는 적합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GFI, TLI, CFI 지수는 다소 만족스럽지 않았다.

이상을 요약하면, 한국판 TEQ는 정서공감을 측정하는데 신뢰롭고 타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척도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주요 의의는 정서공감 측정에 초점을 맞춘 한국판 척도를 마련한 점이다. 서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공감에는 인지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가 동시에 존재하는데, 공감을 통합적으로 측정하는 척도들을 사용하면 각각의 고유한 측면을 놓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각각의 측면을 고유하게 측정하는 척도가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먼저 정서공감에 초점을 맞춘 TEQ를 번안하고 타당화한 것이다. TEQ는 정서공감 차원만을 간단하게 측정하는데, 이를 통해 공감 연구 결과 해석에 간명성을 더 확보할 수 있고, 또한 향후 공감 연구에서 인지공감과 정서공감의 차별적 역할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물론 기존에 정서공감에 초점을 맞춘 척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Mehrabian과 Epstein (1972)의 QMEE를 들 수 있는데, QMEE는 문항 수가 33문항으로 다소 많고 하위 척도가 7개나 되어 연구 결과를 해석할 때 간명성을 해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정서공감과 애착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Lee, Kim과 Seo (2006)나 Trusty, Ng와 Watts (2005)의 연구에서 QMEE를 사용한 결과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불안애착이 QMEE와 정적 상관을 나타냈는데, 하위 척도가 7개나 되다 보니 어떤 요인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알기 어렵고 복잡하였던 것이다. 더구나 최근 QMEE의 원 저자들은 QMEE의 개정판인 BEES의 활용을 막고 있어 실용적

인 측면에서도 한국판 TEQ의 번안, 타당화가 의미 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의의를 통해 한국판 TEQ의 활용 가능성을 짐작해본다면, 추후 정서공감과 관련된 변인들을 탐색하여 공감 이론의 정교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임상심리학이나 상담심리학 분야에서 기분장애, 불안장애, 성격장애 등 다양한 심리적 문제와 정서공감과의 관련성 및 상호 영향에 대해 연구할 때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공감 교육이나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도 더 정교화될 수 있을 것이다. Park (2004)은 국내에 발표된 공감훈련 연구들을 검토하면서, 프로그램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다고는 하지만 인지적, 정서적, 의사소통적 요소별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다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한국판 TEQ를 사용하면 공감 훈련 프로그램들에 정서적 요소를 어떻게 도입해야 하는지, 프로그램이 정서적 공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밖에도 정서공감과 관련된 직업군(의사, 간호사,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등)의 선발이나 배치, 특성 비교 등의 작업에서 한국판 TEQ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가 정서공감에 초점을 맞춘 척도를 준비한 데 의의가 있다면 향후 인지공감에 초점을 맞춘 척도의 등장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인지공감은 타인의 감정 상태를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 즉 그의 입장을 헤아려보는 것을 의미하며, 유사한 개념으로 조망수용(PT)이나 마음읽기(mind reading)가 있다. 개념적으로도 인지공감과 정서공감은 분명히 구별되며, 최근에는 이 두 요소를 별개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등장하고 있다 (Kim, 2015; Preston & de Waal, 2002; Rankin, Kramer, & Miller, 2005). 그러나 아직까지는 인지공감에 초점을 맞춘 개별 척도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인지공감과 정서공감을 측정하는 개별 척도가 모두 갖추어질 때, 대인관계 적응, 친사회적 행동과 이타심, 심리치료 장면의 공감 등에서 인지공감과 정서공감의 역할을 보다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들로 논의할 수 있는 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Spreng 등(2009)이 제안한 단일 요인 모델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도하였는데, 일부 지표(CMIN/DF, RMSEA)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아쉽게도 적합도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었다(GFI, TLI, CFI). 물론 Spreng 등(2009)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지 않았기에 본 연구에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것 자체는 의의가 있다. Spreng 등(2009)은 예비문항 142문항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최종 16문항을 선발하였고, 이 16문항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단일 요인 모델임을 제안하였지만, 별도의 표본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지는

않았었다.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것 자체에 의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적합도 지수가 만족스럽지 않게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를 통해 검증해야 할 것이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데, 번역의 문제, 정서공감 특성에 대한 동서양의 문화적 차이, 표본이 온라인대학생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일 가능성, 또는 TEQ의 요인구조가 단일 요인이 아닐 가능성 등을 폭넓게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공감능력의 성차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표본 2에서는 공감능력의 성차 경향성이 확인되었다. 공감능력의 성차에 대해 살펴보면, 다양한 공감 척도를 사용한 기존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공감능력이 뛰어난 것을 보고하고 있다(Feshbach & Feshbach, 1982; Hoffman, 1984; Kim, 1997; Kim, 1998; Kim, 2007; Mestre et al., 2009; Rueckert & Naybar, 2008). 이것은 여성이 남성보다 감정적으로 예민하다는 뇌 기능 연구 결과들과도 일맥상통한다. 여성과 남성의 뇌 기능 비교 연구들을 분석한 Whittle, Yucel, Yap과 Allen (2011)은 구체적으로 감정 경험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몇 가지 차이를 언급하였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타인의 감정 표현이나 감정 상태를 더 잘 지각하며, 여성이 감정적인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여성이 남성보다 감정을 더 자주 강력하게 경험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일부 연구들에서는 성차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것은 아마 측정 방법이나 척도 때문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감의 측정을 생리적 측정법으로 시도하였을 경우 성차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증거가 있다(Eisenberg & Lennon, 1983). 또 인지와 정서 측면 뿐 아니라 사회성도 포함시킨 Baron-Cohen과 Wheelwright (2004)의 공감지수(Empathy Quotient, EQ)와 같은 척도를 사용하면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Choi & Ghim, 2010; Park, Ghim, Cho, & Koo, 2009). 반면 정서공감에 초점을 맞춘 Mehrabian과 Epstein (1972)의 QMEE를 이용한 연구에서는 성차가 비교적 잘 확인된다(Kim, 1993; Kim, 1998; Kim, 2007; Rueckert & Naybar, 2008). 이로 미루어볼 때, 공감의 성차는 주로 정서공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타당화한 TEQ 역시 정서공감에 초점을 맞춘 척도이므로 성차 경향성이 나타난 것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정서공감의 연령차 경향성이 확인되었는데, 이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연령차 경향성은 표본 2에서만 확인되었으며, 50대 이상의 정서공감점수가 40대 정서공감 점수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놓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정서공감이 떨어진다는 주장들(Gruhn, Rebucal, Diehl, Lumley & Labouvie-Vief, 2008; Helson, Jones, & Kwan, 2002; Phillips, Ma-

cLean & Allen, 2002; Schieman & van Gundy, 2000)이 설득력을 얻을 수도 있겠으나, 이에 대해서는 사례수를 보완한 후속 연구를 통해 재검증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즉 표본 2의 50대 이상 사례수가 24명으로 비교적 적으므로 이 연령대의 사례 수를 보완하여 재검증해봐야 할 것이다. 한편 표본 1의 50대 이상에서는 정서공감 점수가 4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지 않았는데, 이는 표본 1이 상담심리학 전공 대학원생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넷째, 한국판 TEQ를 타당화하는 과정에서 IRI를 실시하였는데, IRI 개별 하위척도 간 비교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Baron-Cohen과 Wheelwright (2004)는 IRI의 4 하위척도 중 상상(FT) 소척도와 개인적 고통(PD) 소척도가 공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Alterman, McDermott, Cacciola와 Rutherford (2003)도 IRI의 4 소척도 중 조망수용(PT)과 공감적 관심(EC) 소척도만이 공감의 핵심 요소를 담고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국내 연구 중에서도 Park과 Han (2014)은 IRI를 사용할 때 상상 소척도와 개인적 고통 소척도를 배제하고 공감을 측정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IRI-PD 차원은 한국판 TEQ와 전혀 상관을 보이지 않았으며, 공격성 척도와는 .3 이상의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또 IRI-FT 차원 역시 공격성 척도와 .2 이상의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 같은 결과는 향후 공감 연구에서 IRI 척도를 사용할 경우 FT 차원과 PD 차원은 배제하여야 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면 표본의 대표성과 그로 인한 연구 결과의 일반화 문제를 언급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온라인대학교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두 개의 표본을 통해 표집한 사례수는 작은 편이 아니며, 또한 온라인대학교 학생들은 오히려 폭넓은 연령대로 구성되어 있어 온라인대학교 학생이라는 점만으로 대표성 부족을 지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보다는 본 연구 참여자들의 전공이 상담심리학이거나 또는 '상담의 기초' 과목을 수강하여 '심리상담'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라는 점이 더 중요할 것이다. 이들은 비전공자에 비해 타인에 대한 관심과 동정심 등 정서공감적 요소가 더 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정서공감 점수 범위가 축소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추후 상담심리학 전공자가 아닌 비전공자 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척도를 실시하여 결과를 반복 검증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또 TEQ 척도를 번안할 때 한국어와 영어에 동시에 능통한 심리학 박사가 점검을 하였으나, 번안된 문항을 역번역하여 원저자에게 확인받는 절차를 실시하지 못한 것이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다.

## References

- Alterman, A. I., McDermott, P. A., Cacciola, J. S., & Rutherford, M. J. (2003). Latent structure of the Davis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n methadone maintenance patients.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25*, 257-265.
- Baron-Cohen, S., & Wheelwright, S. (2004). The empathy quotient: An investigation of adults with Asperger syndrome of high-functioning autism, and normal sex differences.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34*, 164-175.
- Barrett-Lennard, G. T. (1981). The empathy cycle: Refinement of a nuclear concep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 91-100.
- Bryant, B. K. (1982). An index of empathy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53*, 413-425.
- Burgess, P. W., Alderman, J., Evans, J. J., Emslie, H., & Wilson, B. A. (1998). The ecological validity of tests of executive function.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Neuropsychological Society, 4*, 547-558.
- Buss, A. H., & Perry, M. (1992).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452-259.
- Choi, H., & Ghim, H. (2010). Sex and major differences in mind-reading abilities, empathizing, and systemizing traits: Data from Korean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3*, 119-139.
- Choi, S. (1987). Comparative study on the empathic ability between nursing and non-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 Community Health Nursing Academic Society, 1*, 62-74.
- Chung, B. (1986). *Analytical study of the counselor-client interaction in dynamic counseling process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Chung, M. (2012). A validation study of the Korean-Balanced Emotional Empathy Scal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3*, 1781-1797.
- Chung, Y. H. (2012). *Counselor's empathy and perceived cultural similarity: Effects on impression-formation about cli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Korea.
- Cliffordson, C. (2001). Parents' judgments and students' self judgments of empathy: The structure of empathy and agreement of judgments based on the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17*, 36-47.
- Davis, M. H. (1983).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Evidence for a multidimensional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113-126.
- Dawis, R. V. (2000). Scale construction and psychometric considerations. In H. E. A. Tinsley & S. D. Brown (Eds.), *Handbook of applied multivariate statistics and mathematical modeling* (pp. 65-94).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Del Barrio, V., Aluja, A., & Garcia, L. F. (2004). Bryant's empathy index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Psychometric properties in the Spanish language. *Psychological Reports, 95*, 257-262.
- Eisenberg, N. (2000). Empathy and sympathy. In M. Lewis & J.M. Haviland-Jones (Eds.), *Handbook of Emotion* (pp. 677-691). New York: Guilford.
- Eisenberg, N., & Lennon, R. (1983). Sex differences in empathy and related capacities. *Psychological Bulletin, 94*, 100-131.
- Eslinger, P. J. (1998). Neurological and neuropsychological bases of empathy. *European Neurology, 39*, 193-199.
- Feshbach, N. D., & Feshbach, S. (1982). Empathy training and the regulation of aggression: Potentialities and limitations. *Academic Psychology Bulletin, 4*, 399-413.
- Hashimoto, H., & Shiomi, K. (2002). The structure of empathy in Japanese adolescents: Construction and examination of an empathy scale.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30*, 593-602.
- Hoffman, M. L. (1984). Interaction of affect and cognition in empathy. In C. E. Izard, J. Kagan, & R. B. Zajonc (Eds.), *Emotions, cognition, and behavior* (pp. 103-13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gan, R. (1969). Development of an empathy scal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3*, 307-316.
- Hojat, M., Mangione, S., Gonnella, J. S., Nasca, T., Veloski, J. J., & Kane, G. (2001). Empathy in medical education and patient care. *Academic Medicine, 76*, 669.
- Hong, J. J. (1988). *A study on children's empathy and aggres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Hornak, J., Rolls, E. T., & Wade, D. (1996). Face and voice expression identification in patients with emotional and behavioural changes following ventral frontal lobe damage. *Neuropsychologia, 34*, 247-261.
- Jahng, S. (2015). Best practices i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for the development of the Likert-type scal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4*, 1079-1100.
- Kang, I., Kee, S., Kim, S. E., Jeong, B., Hwang, J. H., & Kim, J. W. (2009).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version of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48*, 352-358.
- Kang, J. (2002). *The influence on the action for advocating human-rights by cognitive capability and affective empathy*.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Kim, H. (2015). Self-consciousness and empathy of socially anxious people. *Cognitive Behavior Therapy in Korea, 15*, 519-539.
- Kim, K. (2007).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oul: Hannarae.
- Kim, K., Ghim, H., Chung, M., Yang, H., & Koo, J. (2008). The relationship between theory of mind and social competence in preschool children.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1*, 21-39.
- Kim, S. (1993). A comparison of empathy for Korean and Canadian university students: A preliminary study. *Korean Journal of*

- Developmental Psychology*, 6, 58-95.
- Kim, S. (1997). *The relationship among student's empathy, academic grade, sociability, attitude on school*.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 Kim, S. (1998). Parental acceptance and the development of adolescents' empath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5, 21-51.
- Kim, S. (2010). Validation of the Emotional Empathy Scale for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Youth Research Associat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7, 1-25.
- Kim, Y. H. (2007).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empathy, personality trait and sexual differences.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2, 573-585.
- La Monica, E. L. (1981). Construct validity of an empathy instrument. *Research in Nursing and Health*, 4, 389-400.
- Lee, J. W. (2000). *A study on the interactivity of network simulation game*.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Lee, S. (2000). *The basis of factor analysis*. Seoul: Kyoyookkwahaksa.
- Lee, S., Kim, D., & Seo, Y. (2006). The effects of counselor attachment styles and counseling experiences on empathic ability.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8, 303-317.
- Levinson, W. (1994). Physician-patient communication: A key to malpractice prevention. *Journal of American Psychiatry*, 273, 1619-1620.
- Mehrabian, A. (2000). *Manual for the Balanced Emotional Empathy Scale (BEES)*. Unpublished manuscript. (Available from Albert Mehrabian, 1130 Alta Mesa Road, Monterey, CA 93940. Unpublished.)
- Mehrabian, A., & Epstein, N. (1972). A measure of emotional empathy. *Journal of Personality*, 40, 525-543.
- Mehrabian, A., Young, A. L., & Sato, S. (1988). Emotional empathy and associated individual difference. *Current Psychology: Research & Reviews*, 7, 221-240.
- Mestre, M. V., Samper, P., Frias, M. D., & Tur, A. M. (2009). Are women more empathetic than man? A longitudinal study in adolescence. *Spanish Journal of Psychology*, 12, 76-83.
- Park, E., Ghim, H., Cho, K., & Koo, J. (2009).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izing and systemizing.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4, 269-286.
- Park, I., & Han, G. (2014).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emotional trauma and adolescent aggression: Mediating effect of anger and empath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1, 375-397.
- Park, S. H. (1994). *Empathy, empathetic understanding*. Seoul: Wonmesa.
- Park, S. H. (1997). *Empathy and prosocial behavior*. Seoul: Moonumsa.
- Park, S. H. (2004). *Study of empathy: The past and the presence*. Seoul: Hakjisa.
- Preston, S. D., & de Waal, F. B. (2002). Empathy: Its ultimate and proximate bases. *Behavioral Brain Sciences*, 25, 1-20.
- Rankin, K. P., Kramer, J. H., & Miller, B. L. (2005). Patterns of cognitive and emotional empathy in frontotemporal lobar degeneration. *Cognitive Behavioral Neurology*, 18, 28-36.
- Reynolds, W. (2000). *The measurement and development of empathy in nursing*. Aldershot, UK: Ashgate.
- Rueckert, L., & Naybar, N. (2008). Gender differences in empathy: The role of the right hemisphere. *Brain and Cognition*, 67, 162-167.
- Schutte, N. S., Malouff, J. M., Hall, L. E., Haggerty, D., Cooper, J. T., Golden, C., & Dornheim, L. (199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measure of emotional intelligenc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5, 167-177.
- Seo, S., & Kwon, S. (2002). Validation stud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1, 487-501.
- Spreng, R. N., McKinnon, M. C., Mar, R. A., & Levine, B. (2009). The Toronto Empathy Questionnaire: Scale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a factor-analytic solution to multiple empathy measur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91, 62-71.
- Stotland, E. (1969). Exploratory investigations of empathy.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4, pp. 271-314). New York: Academic Press.
- Titchner, E. (1909). *Experimental psychology of the thought processes*. New York: Macmillan.
- Totan, T., Dogan, T., & Sapmaz, F. (2012). The Toronto Empathy Questionnaire: Evaluation of psychometric properties among Turkish university students. *Eurasi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46, 179-198.
- Trusty, J., Ng, K. M., & Watts, R. E. (2005). Model of effect of adult attachment on emotional empathy of counseling student.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83, 66-77.
- Wang, Y., Davidson, M., Yakushko, O. F., Savoy, H. B., Tan, J. A., & Bleier, J. K. (2003). The scale of ethnocultural empathy: Development, validation, and reliabili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 221-234.
- Whittle, S., Yucel, M., Yap, B. H., & Allen, N. B. (2011). Sex differences in the neural correlates of emotion: Evidence from neuroimaging. *Biological Psychology*, 87, 319-333.
- Wispe, L. (1987). History of the concept of empathy. In N. Eisenberg, & J. Strayer (Eds.), *Empathy and its development* (pp. 13-37).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Yang, S. E., & Chung, M. J. (1995). The effect of empathy and social evaluation on children's prosocial behavior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16, 97-112.
- Yon, J. (1988). A study on empathic development in Korean childre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9, 29-59.

## 국문초록

### 한국판 토론토 공감 질문지의 타당화 연구

김 환 · 한수미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타인이 감정을 표현할 때, 사람들은 상황파악이 부족하거나 그 원인을 모르더라도 적절하게 공감하고 반응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정서공감은 공감의 기본적인고 고유한 측면이라 할 수 있다. Spreng, McKinnon, Mar와 Levine (2009)은 16문항으로 구성된 토론토 공감 질문지 (Toronto Empathy Questionnaire; TEQ)를 제작하였는데 이 척도는 공감에서 정서공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TEQ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심리측정적 속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먼저 TEQ를 한국어로 번안한 뒤 200명의 대학원생에게 실시하여 검사-재검사 신뢰도와 내적합치도 및 요인구조를 파악해보았다. 또 다른 255명의 온라인대학생 표집에게는 기존의 공감 척도들 및 공감과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 공격성 척도를 패키지로 실시하여 척도들 간 상관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적절한 수준의 검사-재검사 신뢰도 및 내적합치도를 나타냈다. 또 기존의 공감 척도들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공격성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어 적절한 수렴-변별 타당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요인구조에 대해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이 단일 요인을 제안한 반면,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단일 요인 모델의 적합도가 다소 부족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를 논의하였다.

주요어 : 공감 척도, 토론토 공감 척도, 인지공감, 정서공감, 정서공감 척도